

상담과 치유

Counseling & Healing

Healing Our selves / Healing Family
Healing Our Church / Healing Our Nation

2017년
통권 제77호

두번째 이야기



Counseling & Healing Newsletter
2017년 두번째 이야기(VOL. 77)

계간 <상담과 치유>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일 1997년 12월
등록번호 서울 바 02766
발행일 2017년 05월
발행인 정태기
편집인 정경숙

발행처 사단법인 치유상담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Tel 02.599.2400(대표) Fax 02.599.2468
E-mail chci@chci.or.kr 홈페이지 www.chci.or.kr
편집 및 디자인 (주)이안커뮤니케이션 Tel 070.7711.5900
출력 및 인쇄 천일문화사 Tel 031.955.8100

나의 지인(知人)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부모가 모르는 “나”가 있으며
나도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영성수련에서의 2박 3일은 익히 알고 있다고 알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나”를 찾아가는 오묘한 여행이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나이와 함께 성장하지 못했던 어린 나를 발견했으며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묻고 살았던 아픈 “나”와의 만남이었으며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발걸음을 떼는 수줍은 “나”와의 낯선 조우였습니다.

세상적인 체면과 눈치에서 자유로운
가볍고 경쾌하며 신비롭고 근사한 여정이었습니다.

(130회 영성치유수련 참여자의 소감 중에서)



검색 창에
'치유상담' 입력

꽃피고, 새 지저귀는



어느 날 동해안 바닷가를 따라 거닐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로, 파도가 들이치는 바위에는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는, 해초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맞으면서도 바위에 달라붙어 생명을 키워가는 저 해초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거센 파도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키워가는 해초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에 새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에,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무거운 어떤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으며,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무언가를 채워야만 될 것 같아 허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안간힘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두고 구속합니다.

근래에 일어난 아동학대의 면면들을 보면 대다수의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아이들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욱이 아동들이 학대로 죽어나가던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게임방을 전전하였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부모세대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가산탕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주사(酒邪), 그리고 외도 등이 가정파괴의 일반적

모습이었으나, 앞으로의 시대는 컴퓨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표출되리라 어렵사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나 지금이나 중독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옷을 입은 것이지, 그 뿌리는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삶을 노예화하는 어떤 것”

사실 중독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은 크게는 물질 중독과 과정중독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질 중독은 알코올과 약물과 마약, 음식, 니코틴, 카페인 등 우리 몸 안으로 섭취되는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몸과 마음은 이 물질들에게 의존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장 보편적인 화학적 의존의 산물이며, 이러한 물질들은 대개 기분을 전환시키는 화학물질들입니다. 반면 과정중독은 사람을 집착하게 만들거나 의존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일, 성, 게임, 도박, 쇼핑, 인터넷, 종교처럼 대부분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중독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물질중독처럼 중독의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일중독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중독이라 인식하지 않으며, 때로는 이런 행위가 장려받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중독이던 물질중독이던 중독은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물질중독과 과정중독의 밑바닥에는 인간실존의 본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장 정태기



중독의 라틴어 어원은 addicened으로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로마법정에서 중독자(addict)는 잡혀서 감금된 노예나 주인에게 넘겨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어떤 사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의미입니다. 중독이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어떤 것에 넘겨주는 노예화 과정이기에, 술을 처음에는 자신이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신을 먹게 되는 경우처럼 ‘우리 삶을 노예화하는 어떤 것’이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요?

중독은 인간의 실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이던, 아니면 정서적 안위를 얻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던지, 본질적으로 중독 행위 깊은 밑바닥에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욕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이런 욕구를 갖고 있기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중독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독은 인간의 실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중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부추깁니다. 텔레비전을 잠깐이라도 보고 있으면, 사지 않고는, 혹은 흥분하지 않고는, 혹은 누리지 않는 인생은 바보라는 듯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그 자체가 광범위한 중독적 삶의 체계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기에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체계를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보다, 아니 그러한 삶의 환경과 문화가 일어나는 현상 뒤의 근원에는,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 인간 실존의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놀라운 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목마름을 채우려는 욕구가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은 ‘해결점의 방향을 잘못 찾은 목마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영적 의미에서 중독은 단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집착을 통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며 노예화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 채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애착하는 어떤 대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키려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과 명예

와 돈에서 안전을 도모하며, 그 결과 움켜지고자 하며, 지키려 하고, 부풀리고자 끊임없이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임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른 소금물임을 알지 못합니다. 갈증은 끊이지 않아 결국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우리에게는 더한 목마름이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응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신경증 환자,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정신적 원인으로 육체의 병이 일어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응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하도록 처방하였는데 신기한 것은 그러자 이들이 그때까지 앓고 있던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BBC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반문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50년을 치유하여 오셨는데 예외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러자 응이 말했습니다. “예외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외를 만들어보았지요. 약물로 치료를 시도했던 환자들에게 약물은 순간 효과는 있었지만 몇 개월 뒤에 다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온갖 생명의 꽃은 피어나게 되어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병들입니다.

그렇기에 중독의 치유에 있어 인간의 생화학적 특성과, 심리적, 사회적 요소와 그것이 갖는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영성의 회복은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치유는 기도, 말씀 묵상, 영적 독서, 영적체험 등의 영성의 회복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전인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혁이며 치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수시로 빠져드는 우리에게 호세아(6:1)의 말씀은 다시한번 우리를 흔들며 깨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둘째 탕아의 모습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이, 어스름 저녁 무렵이 되어도 마을 어귀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부모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날,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만발한 꽃들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그때, 우리 인생의 꽃은 피고 새 지저귀는 날들도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그래서 드라마치료이다.



김세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아들이 학교에서 왔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본다.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라고 물어보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별일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온몸으로 투덜거리고 불만 가득한 표현을 하였다. 엄마는 말만 듣고 아이의 표현을 보지 못하였다. 아이는 말로는 괜찮다고 말하였지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로 하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그 표현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 아이의 고통을 도와줄 수 없었다. 이처럼 말과 몸으로 하는 표현은 확연히 차이가 나며 그 차이는 인간의 고통을 제 때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없느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 심리치료의 역사에 이 예처럼 인간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예전에는 말을 잘 듣는 것이 상담심리치료였다면 드라마치료는 몸의 언어를 듣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자발적 힘이다

드라마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자발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완전한 자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난 아기는 그 어떤 억압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과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 “야 똑바로 살아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여자가 그러면 안되지” “남자가 그런 것으로 울면 안되지”하면서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은 인간의 자발성을 억압한다. 자발성이 사라진 사람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갈 창조성을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억압적 부모나 사건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한결음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 혹은 문화보존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문화보존 상태는 자발성을 필요로 한다. 이 자발성이 있어야 새로운 삶의 자세를 획득할 수 있다. 한 쌍의 커플이 있다. 남자는 자발적으로 여자를 배려하고 집에 바래다주며 사랑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함께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이란 창조적 과정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후 자발성을

잃어버린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도 자발성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그냥 결혼상태, 즉 문화 보존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들 부부에게도 자발성을 공급해야 활력 있는 부부관계가 되어진다. 이 활력과 자발성을 공급하는 과정이 부부세미나라 할 수 있다. 드라마치료는 개인이나 커플, 더 나아가 집단에게 자발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하게 된다. 자발성은 놀이, 혹은 드라마적 놀이를 통해 얻게 된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기계 문명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인간들은 더 이상 자발적 노력 없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기계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의 로봇화는 이제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 자발성이 필요하지 않은 편리한 기계 문명에 둘러싸여 생동감이 없이 살게 된 인간은 다양한 심리적 억압과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경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자발성이 더욱 필요로 한다. 자발성이란 ‘오래된 상황에 새로운 반응,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반응’이라고 말한다. 자발성이 있어야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발성이 있어야 새롭게 겪게 되는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자발성은 인간에게 더 절실한 에너지다. 이 자발성을 공급하는 것이 놀이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놀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치료 영역에서도 아이뿐 아니라 성인 놀이치료도 등장하게 된다.

드라마치료는 역할변화다

두 번째 드라마치료는 역할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역할은 연극에서 온 단어이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말하지만 드라마치료에서는 인생이 곧 연극이라고 말한다. 드라마치료에서는 ‘역할이란 자아가 취하는 구체적 행동’이라 말한다. 인간의 자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형태라면 역할이란 실제로 보이는 가시적이며 구체적 형태라는 뜻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며 인생을 보낸다. 막 태어난 아이는 역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 아들, 친구 등등,

또한 현대는 농경사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짓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전부였다면 현대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예전에 보지 못한 역할이 늘어났다. 여자도 직장인 역할을 해야 하며 남자도 직장인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부 역할도 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도 농경사회보다 복잡한 기능을 해야 한다. 역할이란 사회적 기능만이 아니라 신체적 역할, 상상의 역할도 존재한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섹스하는 역할 등이 신체적 역할이다. 상상속의 역할이란 날고 싶고, 싸움 잘하고, 돈을 벌고 싶고, 여행자를 꿈꾸는 역할이다.

인간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역할 획득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나가는 역할수행 단계를 지난다. 그 역할이 익숙해지면 역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창조 단계가 이뤄진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역할을 획득한 것이다. 그 고등학교 학생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역할수행 단계를 통과한다. 이후 역할이 익숙해지면 두려움 없이 친구관계를 갖거나 수업시간에 즐기기도 하면서 학생 역할을 창조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친구와 싸우거나 선배에게 돈을 뺏기는 일을 당하면 학생 역할이 병들게 된다. 이 학생은 집에 와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 과정을 역할로 살펴보면 학생역할이 문제가 생겨서 병리적 역할이 되고(고통 받는 학생역할) 집에 와서도 형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치료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 조응하지 못한 역할을 훈련을 통해 건강한 역할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엄마는 고등학생 자녀를 연구실로 데리고 왔다. 그 학생은 틱장애가 심하여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을 뒤흔드는 현상을 보였다. 상담 중에도 틱장애를 보이지만 나는 그 현상을 무시하고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며 어느 역할에 자발성이 높은지 살펴본다. 그 학생은 공부보다 소설이야기 공상과학 이야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 일쑤다. 나는 치료자로서 그 아이와 소설과 과학 분야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아이는 점차적으로 자발성이 생기고 자신이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 즉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해도 돕지 않고 신앙으로만 극복하기를 엄마가 원했다는 것이다. 치료자는 엄마의 이야기 가운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이 심리적 현상(틱장애)을 보이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역할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엄마의 신앙적 대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틱장애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치료자는 그 학생의 자발성이 높은 역할인 문학적 대화를 통해 역할훈련을 시키게 된다. 그 역할훈련이 성공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왕따 이야기를 하게 된다(이야기하는 역할). 이 내면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심리적 억압을 극복하는 역할(치료적 역할)도 강화되게 된다.

성경으로 치유하다

이처럼 드라마치료는 자발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연이나 드라마 형식을 통해 개인과 집단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대화만을 통해 역할의 변화를 꾀하는 역할상담 방법이 있다. 그래서 드라마치료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 그리고 문화의 변화와 예방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대 신경생물학은 이 방법들의 효과를 더욱 입증하고 있다. 인간의 트라우마는 뇌와 신경세포에 저장됨으로 단순히 언어적 접근으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본다. 교육에서도 인지적, 주입식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액션방법을 통해 교육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이다. 그래서 성경교육도 비블리오편리마라는 몸으로 읽는 성경공부가 등장하였다. 성경을 단순히 외우고 학습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변화를 위해 인간의 치유를 위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였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5월 가정의 달에만 다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매일, 매주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교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설교와 성찬과 말씀공부다. 그래서 매주 말씀 공부 시간에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치유적 성경공부, 관계, 자발성을 촉진하는 성경공부가 필요하다. 가정사역이나 치유사역도 강사가 가르쳐주는 세미나식 부부, 부모 학교가 아닌 서로가 참여하고 관계 맺는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치료와 비블리오편리마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나는 누구인가?

: 교육분석과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안석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학과 교수
대학원 부설 정신분석클리닉연구소 소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퇴(百戰不退)”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다. 이 말을 인간관계에 대비해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말일 것이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 욕망과 신념이 현재의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담수련생이 자기 자신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정신분석에서는 <자기분석>이라 하며, 분석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교육분석(analyse didactique)>이라 한다.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심리상담은 전문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를 통한 치유과정이다. 상담자 자신의 문제는 상담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및 상담수련생은 자신의 장점과 한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상담관련 종사자나 수련생 자신이 스스로 내담자가 되어 자신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가고 성장해 가는 경험을 통해서, 전문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상담사(심리치료사) 수련에는 자기분석이 필수적이며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교육분석’이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담자의 치유는 심리상담사(심리치료사)라는 개인의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심리상담사 자신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여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그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때에만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상담사(심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수련생은 교육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익혀야 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내담자는 그 심리상담사에게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상담사에게서 그도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 역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분석에서 심리상담사가 어떤 개념 체계만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수련생은 교육분석이 그 자신에게 관계되고 있으며,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상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야 한다. 자신의 교육분석 과정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심리상담사는 언젠가 그 대가를 매우 비싸게 치르게 될 것이다. 프로이트 제자인 융은 『자서전』에서 치료자가 되기 위한 교육분석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치료자(분석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료자(분석가)가 되려면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당신 실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담자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일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이라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당신은 그 내담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분석가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분석가들은 “상처받았던 치유자만이 치유시킨다!(Le blessé seul guérit)”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처받았던 치유자란 자신의 상처를 잘 들여다보는 치유자를 의미한다. 교육분석을 통한 자기분석은 수련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포함하여 내면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프로이트는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에서 교육분석을 통한 자기분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분석의 주된 목표는 교육분석가에게 후보(수련생)가 그의 연구를 계속할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분석을 통하여 학생(수련생)에게 무의식의 존재를 확실히 납득시킨다면, 또한 억압된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수련생)로 하여금 자기분석이 없었다면 믿을 수 없었을 개념들을 획득하게 하고 정신분석 행위만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기법을 그에게 견본으로 보여준다면, 그것(교육분석)의 기능을 다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동료이자 제자인 정신분석가 페렌치(Sandor Ferenczi)도 자기분석으로서의 교육분석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내담자의 일반적인 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분석가 자신이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운명을 담보

하고 있는 분석가 자신은 자기 성격의 가장 비밀스러운 약점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분석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분석을 통한 ‘자기분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인간은 매우 복잡한 심리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단순화할 수 없고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정신분석적 전통에 따른 교육분석을 통한 자기분석 방법 역시 정신분석의 긴 역사와 학파만큼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만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나’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하는 횡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탐구이다. 횡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적 자기이해’와 성격적 매력, 자기조절 능력, 지식수준, 지적능력, 인생관 및 가치관 등의 ‘심리적 자기이해’ 그리고 외모 및 신체적 매력, 신체적 건강 및 체력 등을 이루는 ‘신체적 자기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의 나’에 대한 횡단적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기이해’, ‘심리적 자기이해’, ‘신체적 자기이해’를 현재의 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현실적 자기’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기이해’, ‘심리적 자기이해’, ‘신체적 자기이해’를 자신의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우수하기를 원하는지, 즉 의무적인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의무적 자기’차원에서 탐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기이해’, ‘심리적 자기이해’, ‘신체적 자기이해’를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우수하기를 원하는지 즉,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이상적 자기’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횡단적 자기분석이라 함은 ‘현재의 나’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측면의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자기 자신을 형성해 온 과거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종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탐구이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현재는 과거의 소산이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의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모든 인간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의 이해에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 준 부모에 대한 이해는 자기이해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초기 대상관계에서 양육자(대개는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부모의 이해를 위해서는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 또는 가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심리적 상처를 받은 과거의 사건들이나 정서적 경험들은 우리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종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

해는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종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는 개인사에 대한 자서전적 분석을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현재의 나(횡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와 나를 형성했던 ‘과거의 나(종단적 측면으로서의 자기이해)’를 자기 자신의 심층적인 측면, 즉 무의식적 측면에서 통합하는 자기이해에 대한 탐구이다. 이 작업은 심층적인 자기분석으로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심리적 역동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무의식적 심리세계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적 요인은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심층적인 자기분석은 혼자만의 자기분석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심층적인 자기분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앞에서 열거한 횡단적 측면에서의 자기이해와 종단적 측면에서의 자기이해를 무의식적 측면에서의 통찰과 연결시켜보는 과정을 분석가와 함께 교육분석을 통해 시도해 보길 권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분석을 통하여 자아상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내용들이 과거에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심리적 경험이나 반복적으로 겪었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분석을 통하여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은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교육분석을 통하여 자아상의 불안정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가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무의식적 요인으로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분석을 통한 자기분석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심층적인 질문과 답을 찾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다면 우리는 정신분석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주체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해보면 subjective/objective=That's Me! 가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치유공동체에서 함께 마음을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계속 되물어야 하고 답해야 하는 화두이다. 이곳 치유동산에서 치유여행을 함께 떠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한편의 시이자, 기도문 “나는 누구인가?”가 생각나는 시간이다.

1)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의 시이자, 기도문. 본회퍼는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 나치운동가였으며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하다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뒤, 1945년 독일 플로렌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글과 신앙은 생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새롭게 조명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영성치유수련 옛보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1학기 김기열



대학원의 영성치유수련을 교육적 목적을 가진 세미나로 알고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알게 된 것은 성장과정에서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한 수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시간을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살았으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며 팔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절망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어머니의 한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가되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것으로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성치유수련에서 치유가 되면서 부정적이고 패쇄적인 자가 무대 체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에 참석한 분들도 자신이 치유된 것처럼 치유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저도 이 수련을 참여하면서 나도 아픈 경험으로 인한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지난 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과거와 회복된 오늘의

나를 편안한 마음으로 조원들과 나누고 그것으로 영성 수련에 온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한 느낌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 마지막으로 아내(또는 남편)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을 비교적 진솔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에 목사가 된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중간 중간에 특별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한 분들 중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받은 이가 있었고, 그가 자신의 불행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분노를 쏟아내는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단지유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분의 분노를 최대한 쏟아내라는 리더의 제안에 그 여인은 온갖 절규와 원망의 말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퍼부었습니다. 한참이나 원망, 절규, 저주에 유사한 폭언을 퍼붓고 난 뒤에 그분은 자신 안에 분노와 원망이 빠져나간 듯이 잠잠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니 리더는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질문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떡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해도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뭐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함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치유 세미나인가?”였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이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나를 비인격적이고 모독적 말로 심히 꾸중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로 인해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것인가?

그를 생각만해도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설문지의 질문처럼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별 고민이나 주저하지 않고 어느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 분을 생각하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룹치유 리더는 나를 지목하시고 앞으로 불

러내어 물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어른이 있고, 그를 생각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긴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다분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갑작스런 야단과 호통, 당시의 아이로서 당한 인격적 모독의 사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인격적 모독의 사건이 연이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분노의 감정과 미움의 감정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점잖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지금 말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장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나를 힘들게 한 내 안에 웅크리고 앉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미움을,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 나를 호통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를 향해 분노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시 109:9,10)한 저주의 시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분노의 말과 행동을 하였는데, 이렇게 한 후에 리더 목사님이, “이제 그 분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았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를 일으키게 하던 그분의 생각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던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배하던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난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던 그분이 내 안

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허겁지겁 짐을 싸서 떠난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그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을까? 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동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로 인해 무척 힘들게 사는 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이 들기조차 하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혹 아내가 이 치유 수련에 참석하여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면 그 고통을 준 장본인이 나라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밀려 왔습니다.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오히려 아내를 향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일인가?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사과를 구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니 말입니다. 2박 3일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를 보는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네.”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을 통해 쓴 뿌리를 해결한 덕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아내에게 행한 저의 말, 행동, 결정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과 결정이 옳았기에 그리 했는데 돌이켜 보니, 내가 소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행한 그것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낙담하게 하였으며,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행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당신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

니다. 아내는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변화된 모습에 무척 당황하면서도 용서해주었습니다. 바라는 아내가 자신의 마음에 쌓인 섭섭한 마음을 받아주는 저를 통해 그 서운한 마음이 해소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목사라는 이유로 사역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소중한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화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가정이나 가족, 특히 아내가 저에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줄 것을 요청할 때, 아내나 가족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한 변화이고, 성도들도 저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사역 못지않게 가족의 소중함을 위해 시간의 활용도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영성치유수련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상처 받은 이들의 아픔을 목격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알지 못했던 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전히 목회 현장에 아파서 힘들어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수련에 여러 사람들을 추천하여 참석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신앙의 공동체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토록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힘에 눌려 고통당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 전인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힘을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영성치유수련 소감문

꼭 밥을 먹어야 하듯 꼭 와야 될 곳!
사람을 보는, 사람을 대하는, 내 맘을 새롭게 하는 곳.
동기부여와 새 힘을 얻는 곳.
새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곳.



정태기 목사님이 이끄시는 영성치유수련을 참석하게 될 줄이야 꿈만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극동방송에서, TV에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보면서 직접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대를 심하게 하고 오면 어느 정도 실망이 있을 수 있는데, 2박 3일을 끝내면서 “역시”, “역시” 마음에서 시간마다 프로그램마다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강의와 춤, 노래, 김중호 목사님의 엄마, 아빠 부르기 프로그램들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탄했던 것은 첫날, 둘째 날에 걸친 아주 특별한 소그룹 시간이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치유의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연신 외쳤습니다. 자신의 깊은 아픔을 쏟아 놓고 그 아픔을 시간을 들여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감동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만질 수 있을까 너무나 정성스러운 준비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리더님의 헌신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2010년 장남의 뇌종양 발견, 1차 뇌종양 제거 수술, 2012년 재발, 2차 수술, 2015년 2월 3차 수술 후 반신불수, 2016년 4월 5일 하늘나라로 떠남. 너무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누르고 누르던 슬픔들이 더는 누를 수 없도록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수련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원망, 내 인생의 초라함, 남편에 대한 원망까지. 울 수조차 없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의 우울증을 치료해 보며, 삶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리더님의 따뜻한 지도와 사랑에 언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영성 치유를 오기 일주일 전, 꿈을 꾸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 아픔을 겪고 걸으려는 의연한 척, 강한 척 했지만 속은 썩어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치유수련에 와서 같은 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슬퍼하

고 기뻐하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연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십 년 가까운 생을 살면서 몸 안에 쌓인 상처와 찌꺼기들을 가진 채 늘 “불안의 근원”, “나란 누구인가”라는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보기도 했고 기도도 했고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 정도였지만 내면까지 치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같은 조원들과의 나눔을 가지며 각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같이,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같은 인간에 의해 회복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첫 걸음을 했던 영성치유수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며 다시 찾게 된 영성치유는 너무도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용광로 같았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넉넉했고 신나고 행복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잔잔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고 보게 하셨습니다. 삶에, 관계에 지쳐있던 내 몸과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지만 혼탁해진 나에게 희미했던 아버지! 여기서 다시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나의 시선에서 돌려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소명을 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47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을 돌이켜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일은 하는데 왜? 생활이 안 되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태어 때의 나의 출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 엄마는 저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출산의 산고

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71년 6월 10일 오후 7시가 넘는 시간, 어머니는 나를 낳고 발로 밀어서 냉골 바닥에 놓고 옆에 있는 이불로 덮어 놓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죽어다오. 나의 아가야 죽어다오. 그래서 나는 밤마다 늘 죽음을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며 아이의 엄마이지만 엄마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아팠고 숨 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를 알고 나의 태어남을 환영하며 축복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나는 행복하게 물처럼 흐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채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맘속 문제들을 해결 받고 그 방법을 배우고 알며 삶의 살아갈 방향을 확실히 잡고 돌아갑니다. 감성을 일깨우는 찬양과 기도, 어색하지만 처음 접해 본 몸의 자유-춤. 그 춤을 통해 자유로워지며 리더들의 헌신적 사랑과 이끌어주심, 교수님들의 삶을 녹여낸 진주 같은 강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영혼의 양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큰 향아리 되도록 노력하며 받은 사랑 갚고 싶습니다.

카톡에서 정태기 목사님 강의를 처음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암 2기 수술 받고 회복중이라서 과연 내가 이번 수련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유튜브를 통해 하루에 한두 번씩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며 꼭 한번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겨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남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은혜스럽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았으며 특히 세례도 받지 않은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기쁩니다.

저는 이 시간 내가 30대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40대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쯤은 총장님 처럼은 못해도 현재보다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게 지금의 엄마 모습이 아닌, 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을, 좀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첫 번째, 참여했을 때는 나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다른 순서 순서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참여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께서 지워주신 짐이 아닌 스스로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살아왔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윽한지, 정말 따뜻한 이불을 덮은 것 같은 그 사랑의 손길을 이번 치유수련에 느끼고 갑니다.

가장 “나”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자유로운 영혼, 육체가 무엇인가를 맞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온 상처 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길 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움츠려 들었던 내가 다시 힘을 얻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돌아갑니다. 나도 향아리 되고 나의 자녀가 향아리 되어 향아리 만드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곳에 내가 왜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전일 당직 근무를 마치고 빨리 휴가를 내라는 아내의 계속적인 회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휴가를 내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아내와 운전을 하고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아내에게 왜 이런 곳에 나를 데리고 왔느냐며 질책을 하였다. 하지만 그 질책이 그래도 이곳에서 어떤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의 내면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상처 받고 짓눌렸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를 하는 시간들이었다.

주님 품에 안기는 데 많은 힘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품에 꼭 안기며 잘 쉬었다 갑니다. 돌아가서 큰 향아리를 만드는데 나의 모든 것 팔아 그 밭을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만남



● 송선미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원 전문과정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만남 1

그 첫 번째 만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갔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면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스쳐지나가기만 했었다. 오래되고 빛바랜 흑백영화의 한 짧은 장면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 나는 교회에 간다며 멀어져가는 언니와 언니 친구들을 동구 밖까지 안간힘을 다해 쫓아갔다. 그러다 힘에 부쳐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한 점의 모습으로 사라지던 언니들의 모습을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면서 엉엉 울었다. 나는 그 때 생각했었다. '나도 좀 더 크면 꼭 교회에 갈 거야.'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 때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있다고 해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 갔었다. 때마침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였다. 한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정성스럽게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간식도 먹으며 새로운 경험에 신이 났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끝나자, 교회를 가는 것

은 성가시고 지루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교회에 발길을 끊었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다니 과학 선생님께서 종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과학실로 오라고 하셨다. 그곳에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앉아있었고, 과학 선생님이 뭔가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다.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짐승의 수 666에 관한 이야기, 말세에 천재지변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 때는 너무 두렵고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얼마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나가게 된 교회는 1년도 안 되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천로역정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며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지...

만남 2

20대 중반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믿음생활을 하던 남편은 처음에는 호감이 가지 않았다. 함께 봉사를 하는 가운데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장점들이 보이고 호감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 1년이 조금 넘는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같은 확신 가운데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연애기간 동안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울음을 토했다. 그렇게 탈진이 되도록 울던 어느 날 밤 '이러다가 암에 걸려 죽겠다'는 위기감이 스쳤다. 살기위한 비참한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고통을 억압해 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왔고 결혼하였다. 결혼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환상은 산산이 깨져버렸고 기대와는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에 절망스러웠다. 그의 엄마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냉혹한 현실로 밀려난 것 같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첫 아들이 태어나고 서툰 육아생활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존재도 몰랐던 과물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건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때리고 협박하고 악담을 하였다. 머리에서는 '이러면 안돼.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제발 참아!'라 하지만, 화산같이 터지는 분노는 불가항력으로 나를 덮쳤고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 너무 괴로우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어둔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통곡하기도 하고, 어느 날 밤에는 시내로 뛰쳐 나가서 새벽까지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죄책감과 절망감이 나를 지배하였다. 난 내가 미친 사람 같다고 느껴졌고,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할 나의 이런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너무 낮설고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책임감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정하기 싫지만 그 괴물은 분명 나의 일부였다. '너는 언제 내 안에 들어왔고, 언제 이렇게까지 거대해졌을까?' 나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나 언니 오빠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지 못했다. 맨 위의 두 언니들은 일을 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고, 큰 오빠는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보기 힘들었다. 작은 오빠는 너무 무섭고 난폭해서 나는 오빠의 험악한 인상과 큰 소리로 협박하며 번뜩이는 눈빛을 보면 움츠러들고 겁을 먹었다. 작은 오빠는 곤잘 때리기도 했고, 욕심이 많아서 언제나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에게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 때에는 별미였던 라면을 끓여서 혼자 먹으면서 옆에서 한 입만 달라고 부탁하

는 어린 동생에게 별레가 들었다며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 들기름에 구운 고소하고 짭짤한 구운 김도, 계란 후라이도 작은 오빠는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 오빠는 무섭고 욕심이 많았지만, 나는 그래도 오빠가 나를 귀여워해주고 예뻐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오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기 싫은 일도 좋아서 하는 냥 마음을 숨기고 했었다. 막내언니는 종종 나를 돌봐주고 데리고 다니기도 했지만 언제나 나를 귀찮아하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때어놓고 친구들과 사라져버렸다. 작은 시골 동네에는 같은 또래 친구도 없어서 뒤뜰이나 마당에서 혼자 노는 일이 많았다. 부모님도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사랑과 관심을 주시지 못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고 늘 아프다며 거의 방 안에만 계셨고 막내딸이라고 한 번 안아 주거나 귀여워해주신 적이 없다. 난 생각했다. '어쩌면 돌하르방이라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낫겠다.' 내 마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니 엄마는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셨다. 농한기에는 시내에 나가서 식당과 제과점에서 일을 하며 어떻게든 6남매를 키우고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다. 어린 나는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 너무나 받고 싶었지만, 먹을 것을 싸 가지고 일하러 간 엄마는 저녁에야 들어오시기 때문에 점심을 굶을 때도 많았고 어둡고 적막한 집에 혼자 있거나 동네의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더불어 놀았다.

만남 3

상담공부를 하면서 유아기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과 돌봄에 대한 허기가 내 안에 있었고 늘 나를 따라다니며 내 삶을 조종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너 살 때의 기억으로 해가 저 어두워졌는데 엄마는 나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엄마 나가 버릴 거야.'라며 어두운 길가로 달려가고 나는 소리쳐 울면서 '엄마, 가지마. 잘못했어!'라며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갔다. 엄마는 점점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도 도저히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 안에는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은 깊은 두려움과 아무리 달려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두움은 나를 삼켰고 나의 울음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여섯 살 때에 나는 '욕'이라는 것을 배웠다. 가족들이 모여 있던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 앞에서 '가시나'라고 욕을 했더니, 막내 언니가 '엄마, 애 욕하는 것 좀 봐.'하면서 가족들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가족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분 좋고 으쓱했다. 한동안 내가 욕하는 것은 계속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나를 바닥에 힘으로 억누른 뒤 내 몸 위에 올라타더니 주먹을 내 입에 밀어 넣으며 무섭게 위협하였다. '너 이래도 욕할래?'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고 입에 억지로 밀려들어오는 주먹이 고통스러웠다. 경기를 하듯 몸부림치며 울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본능적이고 필사적인 행복이었다. '난 단지 주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어느 여름밤에 마실을 간 엄마, 마을 아주머니들과 둘러 앉아 밤이 늦도록

수다를 떠시는데 엄마가 좋으니까 따라갔지만 여간 지루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고 엄마의 등에서 정신이 들었다. 여름 밤 공기는 시원했고 환한 쪽빛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과 은하수가 흐르고 엄마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를 받치고 감싸고 있는 엄마의 든든한 팔, 내 몸에 스며들 듯 가까이 와닿는 엄마의 살과 근육, 엄마의 숨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엄마의 등에 얼굴을 기대고 자는 척 했다. 혹시 내가 깰 줄 알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할까봐! 그때의 그 행복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를 방임하고 방치하듯 키우신 부모님과 무서운 오빠, 그 누구에게도 사랑과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란 나는 '착한 아이', '혼자서 잘 하는 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 자랐고 청소년 시기에는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남에게 맞추어 주려고 애쓰며 살았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대꾸하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어디가든 인정을 받았지만 내 삶에는 즐거움도 여유도 유머도 없었다. 오직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싫어도 스스로 저야하는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함이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큰 아들이 4살 때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즈음 큰 아들에게서 문제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 삶은 잘 바뀌지 않았고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다가 상담을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20대 중반에서야 그동안 꿈과 목표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비

전과 사명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 무렵이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과 음성으로 또렷하게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상담의 사명을 받고 두란노상담학교에서 상담공부를 2년 동안 하였는데, 출산과 함께 그 길은 멀어졌고, 그 후 10여 년 동안 살림과 육아와 경제활동을 하며 치열하게 사는 동안 이루지 못한 사명은 큰 짐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히자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상담을 다시 공부하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수업 중에, 영성치유수련을 통하여, 치유공동체와 콜로кв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아픔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살던 그 괴물이 왜 생겨났고 그렇게도 나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원망스러웠던 부모님과 언니오빠들이 달리 보이고 그들의 삶과 마음이 헤아려졌다. 남편에게 맺혔던 상처도 같이 풀어내고, 자녀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큰 아들의 상처받고 닫힌 마음을 대화로 풀어내었다. 큰 아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울면서 자신의 아팠던 마음과 상처들을 쏟아내기를 수차례 하였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나를 닮았던 아들'은 웃음과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 대화가 풍성해지고 사랑과 정이 오가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과거와의 차이를 실감하고는 놀라게 된다.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고 건강해지다보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진심이 보이고 느껴졌다. 남편은 그동안 내가 쏟아내는 경멸과 무시와 분노를 다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나에게 따지

거나 화를 내거나 함부로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남편이 커 보이고 대단하게 느껴지며 나를 향한 깊고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와 오빠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받고 있는 것 같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본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119:7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구절이다. 비 없이 무지개가 없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시려는 뜻이었는데 모르겠다.

내가 만약 나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준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과 심리상담이란 학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세 번의 만남은 내 인생의 축복이고 기적이었다!



恨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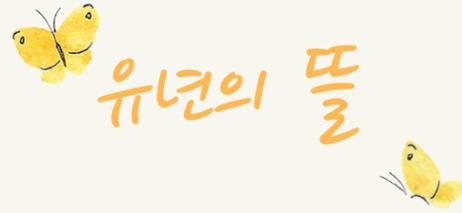
(이 글은 지난 학기 한(恨)치유 과정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소감을 모은 글들입니다.)

- 한(恨)을 한없이 듣고 한없이 만나고
한없이 울고 나눌 수 있었던
그렇지만 남아 있는 여한(餘恨)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둘째 날 밤, 큰 하얀 도화지를 나누어 주시며 모서리부터 한을 생각하며 구겨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서리를 시작으로 점점 전체를 짹짹 구기며 또 구기며 그 큰 도화지가 내 손안에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펴라고 하셨는데 썩 펴보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구김 하나 하나가 살아 있고 서로 조화로운 정말 걸작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내 인생 걸어온 구김 구김들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흰 도화지보다 훨씬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구김들. 그것은 내 인생의 걸작이었습니다.
-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갈 곳을 몰라 꿈틀거리며 발버둥친 나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에 갇혀 있는 애벌레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비가 되어 마음껏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를 구기던 마음이 슬프지만 앓았던 것은 그것이 나의 무늬이고 저입니다. 세상에 돌도 없는 고유한 저입니다. 그런 멋진 무늬를 지닌 저를 사랑합니다.

한을 들었다. 한을 보았다. 한을 느꼈다.
한을 말했다. 한을 만났다. 한을 풀었다.
한을 여한으로, 친구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한에서 타인의 한으로, 타인의 한에서 나의 한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 안에서 한 밖에서 한을 뛰어 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 본당에 앉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오고 가는 길목에서 별칭을 주님께 여쭙고 여쭙었는데 딱히 답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이곳에 앉자마자 "나에게 안테나를 세워라." 그 순간 별칭은 안테나로 응답받았다. 내 안에 있는 여러 출렁거리고 일렁거리는 이 감정들이 '한'이라는 것, 주님은 정확한 안테나를 나에게 주셨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정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감정, 역동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작업하시는 주님의 감정이 느껴진다. 영성치유의 묘한 매력이다.
- 역시! 멋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없으셨습니다. 예비하셨고 주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토록 가슴 저리도록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갑니다. 삶의 방향이 새로이 세워졌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 맺으려 갑니다.

- '한'의 전반적인 개념정리와 그 풀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 같다.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듯 한 영광스러움을 체험했다. 나의 한과 삶의 과정이 거울이 되었듯이, 다른 이의 삶의 한이 또 내 자신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주어야 타인을 소중하게 배려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관계를 할 수 있었다는 가르침을 확실히 배워갑니다. 나를 병들게 하였다라는 이 한을 통해 "세움"의 소망자로 살 수 있겠습니다.
- 솔직히 졸업하기 위해 필수였기에 참석한 영성수련이었으며 다른 분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영성수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성수련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강해, 한이라는 것이 쉽게 와 닿지 않았으나 이 수련을 통해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성에서 감성으로의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지금 이 시간, 2박 3일을 정리하려고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 주신 선물 가지고 돌아가서 저도 먹고 필요한 곳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연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원 인턴과정

두메산골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네, 일곱 채 정도의 집만이 텅그러나 있던 그 작은 동네에서 나는 늦둥이로 태어났다. 그 중에 셋째가 큰 아버지집, 우리 집, 그리고 작은 아버지집이었다. 이미 오빠들은 객지로 떠나고 언니도 내가 태어날 즈음 타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이미 왕성한 활동기로 접어드는 그 와중에 생긴 나를 큰집 작은집 우리집 모두는 '집덩이'로 불안하게 맞이하였다. 예전에는 형제들도 많아서 60여개 가까운 눈이 나를 번갈아 보며 '저걸 어쩌나! 저걸 어떻게 키우지!' 하는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의 영혼에는 그들의 불안,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나의 내면 밑바닥에 자리하게 되었다.

돌 지날 무렵, 더욱이 이제는 집이 딱 두채 밖에 없는 더 깊은 두메산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나마 놀아줄 언니 오빠도 장성하여 집에 없는데, 이제는 친구와 어울릴 수조차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여 8살 여름 방학까지 살게 되었다. 누구와의 놀이는 생각 해 볼 수조차 없었고, 어른들이 일하는 곳에서 그저 말없이 혼자 노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장난감도 없었고 이렇게 놀자 저렇게 놀자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존재감도 없이 그냥저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부모님도 너무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 창피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또 거기다 며느리까지 맞게 되었으니 나에게 본 마음은 아닐지라도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돌봄도 사랑도 귀여움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거기다가 큰오빠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나와 4살 터울이다 보니 이제는 그 조카의 안전까지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다 조카가 집에 다녀 갈 때면 어른들 일 할 수 있게 떼어 놓기 위해, 나도 하고 싶은 것 꼭 참고 조카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 고모랑 놀자고 달랜 기억도 있다.

그래서인가, 나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유년기 시절이 없었다. 부모님이 작은 것에 잘했어 칭찬해주고 우리 딸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길도 제시해주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막내 딸이라고 자랑도 하고 살갑게 챙겨도 주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빠져

있었다. 그냥 너 있구나 하는 정도였다. 그렇게 자라난 나는 항상 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 가르쳐주고, 시험 잘 못 보면 더 공부하라고 다그치며 어느 부분까지 끝낼 때까지 방에서 못 나오도록 통제해주는 그런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다. 그 공허감은 30대 후반까지 계속 이어졌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상담학개론 강의를 통해 가장 위에 떠오른 나의 공허감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서 제대로 상담을 공부해야겠구나 결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알게 된 정태기 목사님과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이었다.

내게 있어 치유상담연구원과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비로소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더욱 깊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시간 시간마다 듣는 강의를 통하여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깨달음의 연속이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작고 사소한 나의 모습, 행여 누가 알까봐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나의 인생사에 웃고 울기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또한 학기 중에 참여하는 영성 수련은 나 자신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영성수련에서, 분노문제로 힘들어 하였고 가장 윗면에 드러난 분노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시아주버니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가장 윗면에 자리하고 있었다.

결혼 초 남편의 행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 내 마음 잘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며 힘든 상황을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 같은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야기 하던 것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입을 닫아버렸다. 목회자는 이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는 목회자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낸 분노였다. 그것을 통해 나는 내 안에도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많음을 알았고 결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차라리 입을 다물리라 다짐하며,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 다음 층의 분노는 남편에 대한 분노였다. 결혼과 동시에 터지는 남

편의 카드빚과 씹씹이는 나를 힘들게 하였고, 이것 막으면 저것이 또 터지고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며, 노름에 친구들 만나 노느라 들어오지 않는 남편 기다리다 새벽에 잠이 들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월급타서 빚을 이리 저리 막는 그런 세월을 10여년 가까이 보내게 되었다. 그 무렵 남편은 영업직에서 건설직으로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다. 영업일하면서 빚만 지우고 허세허풍 물거품의 겉포장만 요란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위해 물질부터 쓰고 보는 성격 때문에 나의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힘들어졌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는 일체의 도움도 의논도 없이 혼자서 감당하느라 나의 분노의 덩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에 대한 분노가 시아주버니 목사님에게 분산되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강의 시간 시간마다 적용하며, 분노의 수위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지면서 서서히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와 권세 겉포장에 치중하며 밖으로만 향해 보여지는 것들에만 치중하였던 나에게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셨고 내면의 강건함이 우선시 되어져야 범사를 주관하며 나갈 수 있다는 분별력도 주셨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분노의 뿌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 뿌리가 세 살 무렵의 큰 율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것임도 알 수 있었다.

큰율께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로인해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분노가 결혼과 동시에, 제대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여의치 않은 환경으로 더욱 터져 올라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내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유아기의 상실은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도록 몰아가던 크나큰 상실이었다. 애어른이 되어 제대로 놀 줄도 모르며 사람과의 관계 맺음도 깊이하지 못하였다. 또 떼를 써 본적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어른들은 바쁘니까... 그러면서도 내 속은 끓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것 같이 하자 저것 같이 하자 이야기조차도 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쁘게 내가 그냥 하지 뭐, 일하느라 힘들텐데 그냥 내가 하지뭐 하는 식으로 내가 다 그 짐을 지려 했다. 어릴 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나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것이 인생 사는 방식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 온갖 짐을 지고 있는, 항상 무거운 짐에 허덕이던 사람이었다. 나도 생각없이 저지르고 살고 싶고, 내가 저질러 놓으면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수없이 되뇌이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가족이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일 것이다.

지금은 남편도 대화가 통하다보니 가정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사이가 되었고 내가 다 일처리하려는 부분들을 상의하며 남편이 해야 할 몫들을 나누려하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크게 기쁘지도 크게 슬프지도 크게 즐겁지도 않은 나는 왜 그럴까? 엄마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연세에 잘 돌아가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오빠의 죽음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잘 가셨다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 했다. 내 부모 내 오빠임에도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죽음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았다. 내 부모 형제임에도 특별히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메마른 나의 모습이였다.

어릴 적 거의 존재감 없었던 나는 인생전반에 걸쳐 살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유아기를 유아기답게 보내지 못하면서 오는 상실의 결과 아닌가! 지금은 그 시절의 나를 위로하며 애도하며 가는 과정에 있다. 유년의 틀에서 한번도 제대로 뛰놀지도 못했던, 웃지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이 친구가 되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나, 그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만난다.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나를 꼭 안아주며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웃으며 맘껏 뛰놀며 춤춘다.

이렇게 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부부가 회복되니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어가고 있다. 우리아이에게도 어릴 적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 부부가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아이도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상담공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며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공부의 재미가 날로 더해간다. 다만 무엇이 되려고 높은 것을 잡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흘러보내는 길이 있고, 맑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넘치는 분량으로 재미있게 기쁘게 내 주변에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비밀(선물)이다

강도현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서

김경희



해피엔딩 수업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는 먼 훗날의 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매주 한 번 이상씩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은 삶의 가까이에 두고 함께 해야 함을 서서히 받아들일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죽음의 명제를 얻기까지 했다.

죽음: 하나님과 분리

죽음에 대해 가장 처음 묵상 했을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주제가 떠올랐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작은 '에덴에서의 추방'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분리, 에덴(기쁨)으로부터 분리로 죽음이 시작되었다. 비록 육신은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나의 영혼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죽음: 자연(몸)과의 분리

5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을숙도에 가서 3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 태풍이 불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 간다. 을숙도는 낙동강변을 따라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생태공원이다. 을숙도에서 산책을 하는 동안은 정말 나 자신이 자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원한 강바람과 가끔씩 바닷바람

이 서로 엇갈리면서 역새와 갈대 잎을 스치는 바람의 소리, 수양버들, 이름모르는 온갖 풀(잡초)들과 나무들, 그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새 옷으로 단장하고 향기와 바람의 느낌이 갈 때 마다 다르다. 그 곳을 걷노라면, 어느 순간 자연과 우리(아내와 나)는 하나가 된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온갖 종류의 풀, 꽃, 곤충, 동물, 철새들이 있는 그 곳에서 나는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곳에서는 '자연은 생명을 담은 소중한 그릇'과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바울이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자연(물질)은 영혼보다 하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내는 소중한 것, 적어도 영혼과 생명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자연과 내 몸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우리는 죽어서도 자연과 분리 될 수 없는데, 그동안 나는 몸과 자연에 대해 무관심하고, 어차피 썩고 불에 타서 심판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과 자연을 영혼에 비해 덜 중요한 것이라 은연중에 생각하며, 영혼과 몸, 생명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설교하며 살아 왔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죽음: 하나님의 선물(비밀)

해피엔딩 수업을 하는 동안 나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죽음에 대해 강의와 글들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죽음이 정

말 풍성한 주제와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죽음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면서,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함께 할수록 나 자신과 나의 삶, 그리고 가족과 성도, 이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느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가 더 부각되어 느껴지는 역설적인 경험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제한된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욱 충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두 번째로 죽음은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은 또 다른 생명의 죽음(식물, 동물, 예수 그리스도)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다. 식물들과 동물들의 희생(죽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 자아가 살고, 옛 습성, 옛 마음, 옛 사고, 옛 본성 등이 죽어야만 새 것이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의 비밀은 '죽음'에서 출발한다. 이제 시작이지만, 분명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 어마한 비밀(선물, 보물)이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 한 죽음을 바라보다

관 체험을 한 날, 남편의 사촌 형이며 나에게도 사촌 아주버님인 분을 보러 중환자실을 찾았다. 사촌 아주버님은 절에도 다니고 굿도 받아들이신 분이란다. 타지에서 생활하시다 죽음에 임박하면서 생사가 알려졌기에 가족들은 거의 낮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남편은 물론 사촌 형의 목을 축여드리고 나는 침대 상체를 높여 편안한 높이로 올려드렸다. 아주버님은 힘겨운 목소리로 당신의 마지막을 위해 모은 경비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어 뭔가 제스처를 취하시니 종이와 펜을 갖다 드렸다. 쓰실 것을 다 쓰신 한참 후 아주버님은 "나는 간다."라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갔지만, 펼칠 수 없었다. 허락된 30분에 방문객이 너무 많았기에 남편은 조용히 형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다. 시간을 달라고, 나는 그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간암 말기라 죽음의 그림자가 온 몸에 퍼져 있었다. 노란 얼굴빛과 삐쩍 마른 피부, 힘든 호흡은 생명이 꺼지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다들 슬픔과 충격을 감추며 간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채 준비되지 못하고 얘기되지 않은 죽음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힘들다.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다. 다시 두려움 앞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우리 부부는 면회 시간이 지난 다른 시간에 아주버님을 찾아뵈었다. 방문이 허락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

에 대해서와 육체는 벗어지나 영혼은 그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알렸다. 그렇게 옮겨질 때, 꼭 예수님을 부르라고,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올 때도 예수님을 부르라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힘으로 사하신 분이란다. 아주버님의 오른쪽 눈에 새 눈물만한 물이 고였고 그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다. 우리의 본성(죄성)을 통회(회개)할 때, 예수님은 문을 여신다.

◆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백지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에 나온다. 자라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만나고 죽음을 배워간다. 삶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희망과 좌절, 웃음과 울음을 선사한다. 그 안에는 세밀하게 생명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고요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호흡이 함께 있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과정이 주어지는지 그 가치를 배운다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죽음 앞에서 힘이 빠지면서 나에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데..., 죽음의 문 앞에서도 생명을 건지시는 데..., 녹아지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묵었던 '용서할 수 없음'의 끈을 놓아버렸다. 마음 한켠이 풀리면서 죄책감과 놀림으로 묶인 공간들이 풀어졌다. 어둠이 자리잡은 곳에 벽이 무너지면서 새 공간이 나타난다. 분노와 슬픔이 녹고, 억울함이 사라진 곳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 속에서 물이 길어 올려진다. 생명의

물이다. 그 사람을 축이고도 남아 다른 사람과 삶에 에너지로 함께 연동할 힘이다. 바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생명의 물줄기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처음 올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단지 삶이 부여한 사연과 풀리지 않은 욕구와 물질에 대한 연민만이 씨줄날줄 연루되어 엮인다. 신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는 단독자다. 죽음에 관한 교훈으로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며 과정 하나하나가 빛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다 갈 수 있는 연습의 통로가 된다.

죽음일기와 유언장 그리고 생의 마지막 말을 동영상으로 남긴 후 죽음 의례를 거쳐 관 속에 누울 때, 몇 미터에 불과한 한낱 작은 인간이라는 진실과 만난다.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은 모두 신 앞에서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알게 되는 사랑과 용서의 깊은 의미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한다. 그 삶은 생명을 찾아 빛이 스미는 거룩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요란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삶의 시간을 지낸다.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사이에 겹겹이 잠겨져 있는 문을 열었다.

봄날 부부학교 초급과정 수료자

한참 격양된 의견들이 오가고 분위기는 험악해진 채로 부부학교 수업이 끝났다. 다음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이제 다시는 안 온다는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전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긴 길...

저만치 앞서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로잡혔다. 우리 사이에 겹겹이 잠겨져 있는 문...

하루하루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러울 때, 우리는 무거운 지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필독서를 읽고 어김없이 월요일 모임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출석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사실 나도 놀라웠다. 남편의 책임감(수업도 약속이다)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남편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수많은 여자들이 이 반대의 경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아픔에 비하면 내 경우는 새발의 피지만 나름대로는 힘겨웠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에 대한 미움, 불신에 사로잡혀서 남편과 나 자신을 괴롭힐 때였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었다. 그 짐을 싸들고 가서 회개하며 울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며칠 후에는 여지없이 제자리였다. 이런 반복이 매우 싫었지만 십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내로 평안과 휴전은 있었다. 그러면서 험악한 이혼의 위기를 넘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으며 가정의 회복과, 화목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의 주기는 늦추어졌지만 싸움의 강도는 여전했고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즈음 <부부학교>를 책에서 보게 되었고 우리 가족도 고치고 그 방법도 배우면 나중에 목회할 때도 유익하리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등록하게 되었다.

부부학교를 통해 처음 충격받은 것은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 테스트였다. 47.2를 받았다. 남편에게 불만은 많았지만 그 심정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초급반, 중급반 거의 1년에 걸쳐 읽었던 많은 필독서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알았으며, 우리 부부의 싸움의 성향과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몹시 교만



하게 보이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감추는 비굴한 모습이 여자에게 평가받기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이란 것도 말이다.

우리부부의 싸움은 주도권 싸움이였다. 남편은 매우 고지식하여서 비록 돈을 벌어서 주머니가 두둑하지만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 의사 결정권을 갖는 남편 상을 이루려 애를 썼고, 나는 매우 현실적인 여자여서 남편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 의견대로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임을 강조하며 싸웠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가였다. 가정 안에 질서가 무너졌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지배하게 되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자라고 있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는 없어지고 불신, 조롱, 자기비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 나는 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산다는 피해의식이 서로 있기에 잘 나가던 대화 중에 아픈 부분이 나오면 상대의 그 아픔을 위로하지 못했다. 그 아픔을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기에 오히려 원인을 캐면서 상대의 잘못을 들추게 된다. 이쯤되면 과거의 쌓였던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등장하고 화풀이, 한탄의 장으로 변한다. 교양, 체면은 다 사라지고 참 유치하게 싸우지만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 내가, 그렇게 유치하고 악랄한 사람이 되는 모습이 부끄러웠다. 부부학교를 하며 책을 통해 모범답안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못하는 짐이 점점 쌓여 갔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기쁨과,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서로의 잘못들이 그룹 안에서 낱알이 공개될 때, 움크려 있던 아픔, 잘못들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고 공유된 가벼운 짐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또 자기의 살아온 모습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되면서 위로 받고, 해결방법도 모색해 보는 과정 자체가 매력이었다. 밤 늦게까지 시끌벅적하게 나누는 삶의 이야기들이 그룹원 서로를 정겹게 느끼게 하며, 마음이 열리자 부부의 막혔던 것이 그 바람에 열리는 듯하다.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 같던 부부 관계가 부부학교 과정의 필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서로를 더 신뢰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놀라웠다.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에 발맞추어 가자 가정에 진정한 평안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부부는 어떤 목표, 가정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할까? 이전에 우리 부부의 목표는 교회 세우기, 선교하는 가정 세우기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끝낸 지금, 가정은 사랑 만들기가 첫째 목표임을 발견한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많은 은사의 진전도 있었고, 큰 은혜도 받았으며 주위의 인정도 받는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었다. 샘솟는 기쁨도 있지만 노력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남편의 변화는 더디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메마른 부부사랑의 충격은 더 큰 갈등으로 남았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다. 그의 이해와 용납, 그의 돌봄과 위로였다. 이처럼 남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나의 사랑이었을 것이다. 나의 이해, 격려, 돌봄, 위로...

부부학교를 통해 잃어버린, 아니 가꾸지 않은 관계와 가정은 가시덩쿨과 엉덩퀴에 둘러싸여 생명을 잃는 것임을... 회복되기 위해 큰 결단을 해야 하며 익숙한 감정, 습관과 결별해야 하며,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제 더욱 사랑을 만들고 회복하기 위해 힘찬 걸음을 옮긴다.

부부학교 개강일

5/27(토), 6/24(토),
7/29(토), 8/26(토),
9/30(토), 10/28(토)

“가정은 당신의 힘이며,
큰 인물을 만드는 곳이다”

가족사랑만들기(부부학교)는 갈등과 아픔 그리고 위기에 있는 부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정사역자와 부부치유전문가가 당신 부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약 2,600명이 참여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모임안내

부부학교 주중, 주말 저녁 중 격주 - 6개월
건강한 가정세우기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부부관계를 치유/잃어버린 부부사랑을 회복하기

교육방식 강의, 워크숍(필독서와 부부사랑실천 나눔), 부부치유, 1박 2일 부부영성수련

• 월, 화, 목, 토 중 원하는 요일을 택하여 12주(격주)로 모임

부부학교 프로그램 안내

1주	당신과의 귀한 만남	7주	나의 성장 배경
2주	결혼과 가정	8주	부부의 갈등과 회복
3주	우리 부부이야기	9주	아름다운 성
4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10주	자녀 양육
5주	서로를 이는 기술(대화)	11주	일과 살림살이
6주	나는 누구인가	12주	가족사랑만들기

사단법인 치유성령연구원
동산가족센터 www.dsfamily.or.kr
Tel.02-599-2407

동산가족상담소 상담 프로그램 안내

가정·부부문제(의심·외도, 성격차이, 대화부재, 성문제, 폭력·폭력, 중독, 시댁, 자녀상담)

동산가족상담소는 전문상담사(치유성령연구원 겸임교수)가 당신의 고통과 아픔이 평안과 기쁨으로 피어나도록 돕는 가족전문상담소입니다.



동산가족상담소 www.dsoun.org
DONGSAN FAMILY COUNSELING OFFICE Tel.02-599-2406 / 070-8239-2407

나의 발을 씻기며...

정미혜 (동산상담센터 상담원)

요즘 황사에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조심스러운 데다가, 뿌연 하늘은 봄기운의 생기를 앗아간다.

예전의 내 마음을 닦아 있다. 숨 쉬기조차 힘들었던 내 마음.

그러던 내가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통해서 마음의 호흡을 되찾기 시작했다.

건강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동산상담센터의 상담원이었다. 처음엔 그저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나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전화상담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전화를 걸어온 내담자들은 나를 다시 각성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인턴까지의 수업을 마치고 필요하다 싶은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으나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 되었다. 사람은 양파껍질 같아서 이 마음을 보고 나면 어느 사이에 날 봐 주세요 하듯이 나의 다른 마음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다 나를 자라나게 하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치유 작업들이 정태기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의 중요한 영역이 됨을 깨닫는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 씻을 일은 계속 생긴다. '치유됐구나!' 하고, 마음보는 작업을 안 하면 어느새 목욕해야 할 마음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상담원 일을 하다보면 내담자 마음, 내 마음을 보게 되니 저절로 발을 씻는 일이 텅으로 따라 오게 되어 있다. 노년이 되도록 폭력으로 얼룩진 부부가 '지옥에서 이젠 천국'이 되었다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나의 부부관계를 도닥거리려고, 어린 시절 집안의 왕따의 경험으로, 마흔 살이 넘도록 계속 왕따 당하는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던 내담자가 한 발자국씩 스스로를 보듬어 안고 존재감을 찾아 가는 모습에서 손주들의 마음을 더욱 소중히 알아주게 되고, 엄마의 마음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하는 내담자를 보며 나에게 할 말 하는 자식이 대견해보이기도 하고..., 내담자들 또한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삶의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윈윈 되는 일이다.

상담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상담원들의 슈퍼비전이 있는데, 센터장님, 소장님, 실장님, 팀장님과 모든 상담원들이 함께 모여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다. 면접 상담이 잡혀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무척 아쉽다.

이번 4월26일엔 청평 교원 비전 센터에서 면접 상담원 힐링 워크샵이 있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면접상담선생님들과의 재회도 우릴 기쁘게 한다. 모두 오랜 기간 상담원으로 임하는 귀한 분들이다. 날씨가 화창하고, 장소도 심신을 쉬기에 맞췄다. 우리를 품어주듯 아늑한 산과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놀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몸의 힐링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는 교수님의 강의와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놀며 웃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떠나 할 것없이 행복해했다. 오후에는 따끈한 햇살을 받으며 야외에 누워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어서 더욱 충전되는 느낌이었다. 그렇지, 우리 몸에 치유의 능력이 있지..., 강의 내용 중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것이다. 맞다! 이것도 잊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해줘야 한다.

이 내용은 나의 발을 씻기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집에 오며, 또 와서 생각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뭘까? 그즈음 나는 며느리에 대한 야속한 마음, 화난 마음,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다. 며느리를 편케 해주려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나. 그러니 너희도 나를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우리 집, 즉 시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의 마음까지도 갖고 싶어 하는 욕심 사나운 시어미가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다 이해하는 양, 온화하고 너그러운 양 하면서, 며느리 마음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알아채자, 그 욕심스런 마음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으르렁댔다. 순간 서늘한 바람이 쭉 들어왔다. 며느리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하는 서늘함과 동시에 집을 내려놓는 것 같을 홀가분함이 서늘함으로 온 것이다.

시집이라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힘든 데도 오면 더 감사하고 예쁘지! 다시 보는 며느리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다.

내 마음에게 물어 보았다. '이젠 괜찮지?' 받아들일만 했다.

더러운 발을 힐링 워크샵을 통해 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동산상담센터의 선물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음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준 힐링 워크샵과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동산상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동산상담센터는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습니다

동산 가정폭력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상담수탁기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감교육 협력기관
☎ 02)599-7646

동산상담센터

전화상담 · 면접 :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 02)599-7646

서초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 성폭력피해자 개인 · 집단상담
성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군부대)
☎ 02)599-7606

임상치유상담의 선구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트라우마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20여년간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아픔을 치유와 상담의 학문적 영역을 통해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고등학문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태기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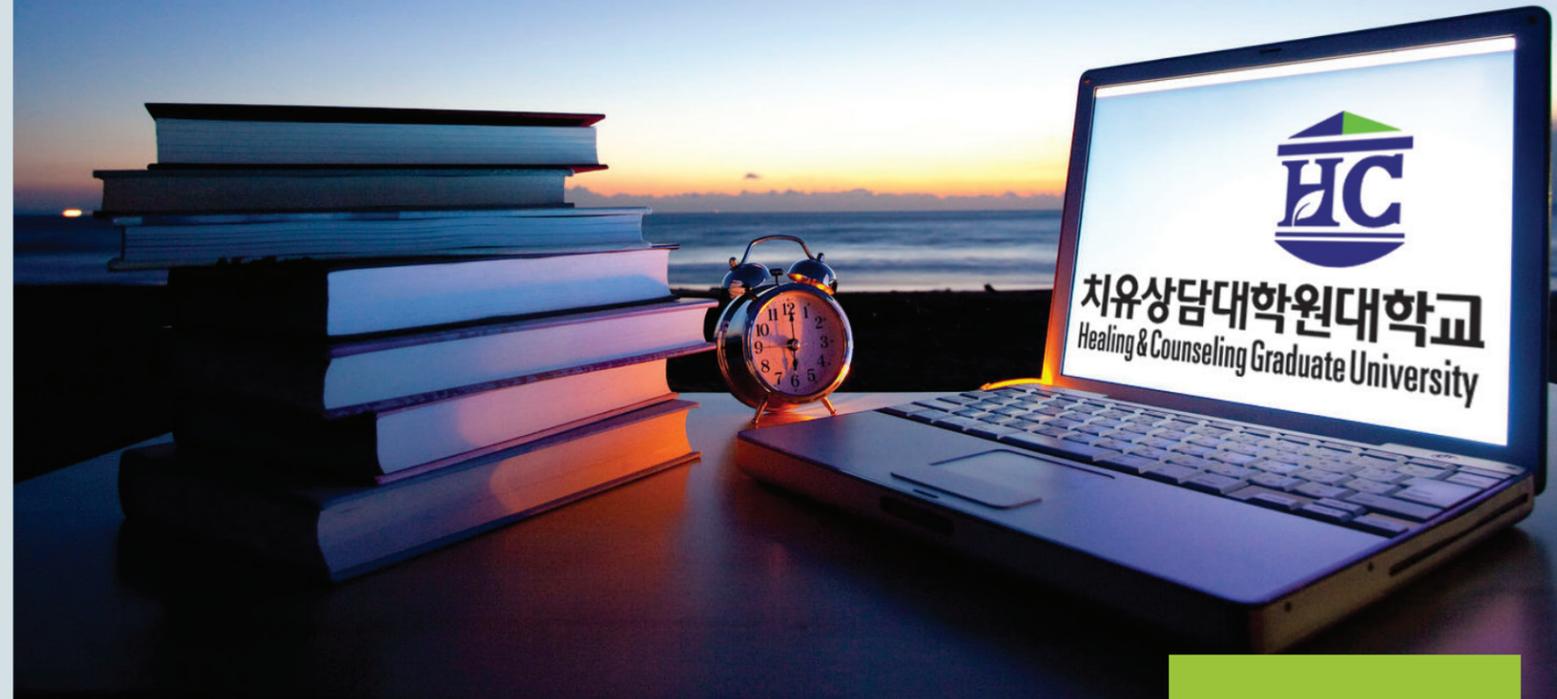
이해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U는 등대를 형상화 한 것으로, 상처 입은 어두운 세상을 치유와 상담을 통하여 밝은 길로 인도하여 건강한 삶의 통로를 열어 주는 의미로 상단 삼각형은 민족의 큰 산을, 하단 반원형은 바다를 나타내는데 거친 파도까지도 평안하게 품어 생명을 살리는 치유(H:"healing")와 상담(C:"counseling")의 특화된 전문 영역의 대학원을 의미한다. H의 새싹은 치유와 상담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남을 의미하며, 새싹의 여백을 준 것은 치유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채워가는 역동적 의미를 표현한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석사과정)	전공분야	신(편)입생 모집인원	
전인치유상담학과	기독교상담, 심층심리학 표현예술치료, 다문화상담	주간 00명	야간 00명
가족상담학과	이동심리, 청소년상담, 부부상담	주간 00명	야간 00명

- ▶ 편입생 모집은 2학차(9학점 이상 취득, 6학점 이상 동일 또는 유사과목 인정), 3학차(18학점 이상 취득, 12학점 이상 동일 또는 유사과목 인정)에 한함
- ▶ 지원자격 및 전형일정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상담문의 **02 599 24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Tel : (02)599-2466 Fax : (02)599-3563

상담심리사 자격증 수여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졸업생을 위해 2017. 5. 13(토),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동산관 2층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교육을 통해 전문가 9명, 1급 47명, 2급 73명 총 129명이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지금까지 1,416명이 보수교육을 받고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상담심리사 자격시험 일정

2017. 11. 3(금) 오후 7시 (시험)
2017. 11. 25(토) 오전 10시 (보수교육)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 www.chci.co.kr
HEALING COUNSEL CYBER ACADEMY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이버아카데미소개 교육안내 수강신청 도우미 내 강의실

정태기 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진이 **강의실(오프라인)**에서 열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크게 감동받고 치유 받은 강좌를 **사이버강좌(온라인)**로 마련한 것입니다.

치유상담 사이버아카데미는 외국 또는 먼 거리에 있는 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연구원에 와서 직접 강좌를 들을 수 없는 분을 위한 사이버강좌입니다.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장	치유상담 사이버아카데미	영성수련	자격증
--------------	--------------	------	-----

사이버아카데미 특징

- 연구원 일반과정과 동일** - 일반과정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므로 수업하는 분위기 그대로를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료 시, 일반과정 졸업 인정 및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 다양한 과목** - 전체 20과목(과목당 10시간 강의) 유명 교수진 20여 명의 강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 PC와 휴대폰으로 이동 중에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만 연결되면 해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등록 가능합니다. - 레포트 제출과 시험이 없습니다.
- 편리성**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영성치유수련 장소)

연락처 031-672-0114 http://suyang.sarang.org

교통편 안내

● 경부고속도로 남안성IC에서 오는 방법(약 5분 소요)
출발지 → 경부고속도로(1) → 서평택/남안성 IC(40) → 안성 / 원곡 → 서안성TG → 안성 / 용인(45) → 남사/양성 방향으로 직진(3.5km) → 창진산장휴게소(만세고개)를 지나 산 밑으로 직진(약 2km)지점(23) → 양성동백기 앞 우회전(수양관 이정표) → 수양관(약 1km)

- 8번 시내버스(평택터미널 건너편 중앙극장 앞)
평택 → 양성 — 첫차 06:00 막차 21:40
양성 → 평택 — 첫차 06:00 막차 21:30
- 기차 이용할 경우
서울역 → 평택역 하차 → 평택터미널 앞에서 양성행 8번 버스 → 만세고개를 다 내려와서 도라지가는 앞 하차 → 수양관 입구(25~30분 소요)

● 정진평을 초대합니다
● 내면치유의 무례한장이다
● 영성치유는 영성이며 영성이 치유된다



제133회 영성치유수련

개인 그룹, 부부 그룹으로 나누어 치유가 진행됩니다

영성수련 (치유·영성·성장) (부부도 참여 가능) 참가안내

- 일시: 2017년 9월 27일(수) ~ 29(금)
- 장소: 안성수양관

강 사 : 정태기 교수, 김중호 교수
찬 양 치 유 : 임종환 교수, 김경경 교수, 조종길 선생, 김용완 선생
치유그룹리더 : 40명
참 가 인 원 : 약 200명(대상 : 20세~65세)
참 가 비 : 28만 원(서틀버스 이용 시 2만 원 추가)
송 금 계 좌 : 하나은행 396-910009-24004 치유상담연구원
신 청 마 감 : 2017. 9. 25(월)까지(입금 선착순이므로 사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 청 방 법 : 전화, 팩스 또는 본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 (대)02-599-2400 (FAX)02-599-2468
참 고 사 항 : ① 2017. 9. 25(월) 이후에 취소하는 분은 수양관 예약비 10만 원을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② 참가자는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수양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③ 서틀버스를 이용해서 참가하실 분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연구원(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 150m 지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과 굵 낮은 신발, 세면도구



영성수련 리더들

제134회

영성치유수련(한치유)

-영성수련 1회 이상 참석자만 가능

일 시 2017. 11. 9(목)~11(토)
장 소 실촌수양관

제135회

영성치유수련

일 시 2017. 12. 14(목)~16(토)
장 소 안성수양관

2017년도 치유상담연구원 신입생 모집

목회자를 살리기 위한 전인적인 사역, 영성이 살아있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 가정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통해 살아있는 가정, 힘있는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합니다.

교수진



정태기 원장

한신대 명예 교수
치유목회
상담학 이론과 실제
위기 상담, 영성수련



김중호 부원장

영성수련
인간관계와 자기성장
내면치유의 실제



강에스더 교수

중년기 부부 상담
중년기 상담



고영순 교수

애니어그램과 영성
권력관계성이해



고혜경 교수

집단투사 꿈작업
융심리학



김세준 교수

사이코 드라마
드라마치료



김의식 교수

가족치료
성경과 치유



박선영 교수

영성수련
춤작 치유



백정미 교수

경험주의 가족치료
부부관계 의사소통



손운산 교수

용서와 치료
애도 수퍼비전



안석 교수

정신분석
심리학과 치유



오매성 교수

동산상담센터소장
임상실습



유상희 교수

청소년상담
다문화상담



이금만 교수

기독교 발달 심리
정신분석과 자기계발



이유상 교수

이상행동심리
중독의 이해



이현숙 교수

서울 전문심리치료원 원장
인지행동 치료



임중환 교수

음악치료
영성수련



정병호 교수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놀이치료



정푸름 교수

기독교상담
자아정체성과 관계이론



채유경 교수

심리검사이론과 실제
자기존중감과 치유



허재기 교수

해피엔딩센터소장
해피엔딩만들기

■ 모집학과

- 주간: 목회자 치유상담학과(목회자 - 00명)
사모 치유상담학과(사모 - 00명)
평신도 치유상담학과(평신도 - 00명)
- 야간: 치유상담학과(목회자, 사모, 평신도 - 00명)
- 토요일반: 치유상담학과(목회자, 사모, 평신도 - 0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료: 2만원



* 2년 4학기 연구원 과정을 수료하면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 입학식/개강

- 일시 2017년 9월4(월), 11(월)
10:00~17:00(주간)/한신교회
19:00~22:00(야간)/치유상담연구원 2층
- 일시 2017년 9월 2일(토)
10:00~17:00(주간)/치유상담연구원 2층

